

갈등조정협 이달 출범… 첫날부터 ‘진통’

적합한 도민 의견 수렴 방식 정해 도지사에게 권고
내년 1월 도출… 의견 수렴 결과 상반기 국토부 전달
제2공항 찬성 측 “법적 근거 없어” 대규모 집회 예고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해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권고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이하 제2공항 조정협)'가 이르면 이달 출범한다. 그러나 제2공항 찬성단체가 출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위 지사가 내세운 제2공항 갈등 해결 해법이 시작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한 3대 방침을 발표했다.

3대 방침은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 검증 확대 ▷도의
회 동의 전 도민 의견 수렴이다. 제
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곧바
로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
로 지정한다.

중점평가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
부 예규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예규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

식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도출해 권고하는 기구다.

제주도는 제2공항 조정협 출범을 앞두고 구성 방식·대상 등을 논의하는 준비위원회를 지난달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제2공항 조정협이 출범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까지는 해당 기구에 도민 의견 수렴 방식 논의 포함해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검증하도록 하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제주도의 구상이다.

환경영향평가서 검증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 녹색환경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2곳을 추가해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습굴·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교차 검증한다.

가장 큰 쟁점인 도민 의견수렴 방식은 제2공항 조정협에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도출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안에 도민 의견수렴을 마쳐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전달한다.

제2공항 조정협에 참여할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전문가 등을 포함해 제2공항 찬반 단체 인사가 직접 참여

하는 방안, 찬반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 찬반 양측을 모두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조정협 구성·운영 방식은 준비위가 마련한 뒤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조정협은 위 지사가 구상한 찬반 갈등 해소의 첫 단추이지만 앞날은 험난하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2공항 조정협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며 9일 도청 앞에서 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거론되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는 서로 장단점이 뚜렷하다. 공론조사는 정부 간섭 없이 지자체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도출된 결론이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선 지자체가 최소 2년간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등 법적 강제성이 있지만 정부에 설치요구권이 있는 점만 한계를 지닌다.

이상만기자 hasm@ihalla.com

추석 전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도의회 인사청문특위 9일 제1차 회의서 일정 확정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 연휴 직전에 실
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 제1차 회의를 진행해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일도2동), 오은초 의원(경방·중앙·천지·서흥동), 고석준 의원(비례대표), 오경남 의원(비례대표) 등 4명과 국민의힘 소속 이정환 의원(비례대표), 김경애 의원(비례대표) 등 2명, 송영훈 의장 추천 조국

추석 연휴 양지공원 화장로 운영 중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기간 양지공원 봉안당 안내 요원과 주차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양지공원 입구 및 5·16도로에는 자치경찰단을 배치한다. 또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방문객이 몰리는

혁신당 김혜지 의원(비례대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3선 의원인 박호형 의원 선출이 점쳐지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일정은 추석 연휴 직전인 23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31년 공직 경험과 서귀포시 현안 해결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태윤기자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제주전역 밝힌다

어제 탐라문화광장서 채화
10일부터 도내 31구간 봉송
해녀·기마대·특별봉송 눈길

오는 11일 제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8일 재화돼 오는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도내 봉송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5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와 참가 선수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성화 채화식을 개최했다.

채화된 성화는 제주자치도청에 안치되며, 10일 도청에서 출발식을 갖고 11일까지 이틀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31개 구간, 175명의 주자가 봉송에 나선다. 이번 봉송에는 제주의 문화적 특색과 장애인체전의 가치를 담은 특별봉송도 선보인다.

제주 해녀들이 성화주자로 참여하는 해녀봉송(성산을 광치기해변)을 통해 제주의 상징인 해녀문화를 표현하고, 자치경찰단 기마대와 합

개하는 기마봉송(제주시 고마로)을
진행해 역동적인 볼거리를 선보이
다. 착용형(웨어러블) 로봇을 활용
한 휠체어 장애인 성화봉송(서귀포
시청 입구) 등 장애인체전의 가치
를 담은 특별봉송도 진행된다. 이
와 함께 영지학교 학생을 비롯해
장애인 선수와 학생체전 수상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다양
한 주자들이 성화봉송에 참여한다.

31개 구간을 순회한 성화는 11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해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



위성곤 제주지사와 칠선녀 대표가 8일 오후 탐라문화광장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밝
혀줄 성화를 채화, 힘껏 들어 올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식에서 성화대에 접화된다.

위성근 지사는 “오늘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불꽃을 밝힌다”며 “이 불꽃이 제주 곳곳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참가 선수단의 안전을 기원하며 선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주 전역에서 열린다. 제주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서 9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골볼, 보치아, 쇼다운, 쉐런, 휠체어럭비 등 31개 종목 경기를 치른다.

제21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제주 바다의 가치, 수산업의 미래를 잇다

2026. 9. 28. 월

한림종합운동장 한림체육관
한림중앙로 71-9

2027년, 한국 수산업의 든든한 주역인 전국 수산업경영인들이 제주에 모입니다.
「제16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사)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주관 | (사)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